

EU 연구평가개혁 협정 내용 분석

<22.09.20, 한-EU연구협력센터>

송 예 일

1 연구평가개혁 개요

□ 추진배경

- 연구평가개혁은 연구의 질, 성과 및 긍정적 파급효과 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으며,
 - 이는 우수한 제안서·연구원·연구팀·기관을 선정하는 데 필수적임
 - 그러나 개혁은 매우 복잡하고 이행이 느린 문화적, 시스템적 변화를 요구함
- 따라서 EU 집행위원회가 개혁의 촉진 및 가속화를 위해 개혁을 주도함

□ 추진목적

- 더 높은 품질, 더 영향력 있고 효율적인 연구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포괄적이고 협력적인 플랫폼 구축
 - 이는 참여 조직의 완전한 자율성을 존중하며 제도의 실험, 새로운 평가 기준, 방법 및 도구 개발, 공동의 비판적 성찰, 모범 사례 및 상호 학습 교류 등을 위한 플랫폼

□ 추진내용

- 연구평가개혁에 대한 협정(Agreement) 작성 및 연합(Coalition) 형성
 - 협정은 연구의 질과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와 함께 평가 관행의 변화에 대한 공유된 방향을 설정
 - 협정에는 개혁을 위한 원칙, 책무 및 일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혁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기관들의 연합에 대한 원칙이 명시됨
 - 위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연합에 가입한 각 참여 조직은 연합의 지원을 통해 협정이 명시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취해야 할 단계와 개혁의 속도를 결정하게 됨

※ 연구평가에 관련된 유럽 내외의 조직은 협정에 서명하고 연합에 가입하도록 권장됨

□ 추진경과

- ('21.03~'21.11) EU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의 진행
- ('21.12) 연구평가개혁 연합(Coalition) 가입에 대한 의사 표명 촉구
- ('22.01) 연구평가개혁 협정 초안 작성을 위한 공동 작업 개시
 - 공공·민간 연구비지원기관, 대학, 연구센터, 연구소, 기반시설, 연구연합, 국가·지역 당국, 인증·평가 기관, 연구원 협회 등이 초안 작성에 참여
- ('22.07) 이해관계자 회의에서 협정 최종본 발표 및 거버넌스 시스템 논의
 - 해당 회의에는 40여 개 국가의 350개 이상의 조직이 포함
- ('22.09) 'EU연구혁신의날' 연구평가개혁에 대한 본회의 시 협정 서명 개시
 - ※ 한편 사전에 사이언스유럽 사무총장 [Lidia Borrell-Damian](#), 유럽대학연합(EUA) 연구혁신 이사 [Stephane Berghmans](#)에게 이메일로 서명 전달 가능
- ('22.10) 차기 이해관계자 총회에서 개혁 실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관리 기구 구조(거버넌스 시스템) 초안 발표 예정
- ('22.11) '22년 말 연합의 첫 번째 총회 "Constitutive Assembly" 개최 예정
 - 총회에서는 거버넌스 초안의 채택, 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절차 채택, 연합 대표(President) 선출, 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예산 등을 다룰 예정

□ 참여기관

- 협정 초안 작성 과정의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음



- **(Drafting Team)** 초안 작성 팀은 유럽대학연합(EUA), 사이언스유럽, EU 집행위원회 대표 및 Dr. Karen Stroobants*로 구성
- * 연구정책전문가: 메타연구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개인 연구원으로서 참여
- **(MS representative)** EU 회원국 및 관련 국가 대표는 유럽연구영역 (ERA) 포럼 및 ERA 위원회 틀에서 초안에 대해 논의하고 조언함
- ※ 연구평가개혁은 연구·혁신·기술에 대한 유럽 단일 시장을 만들기 위한 유럽연구영역 (ERA)의 20가지 정책 의제(2022~2024) 중 최우선순위에 있음
- **(Core Group)** 초안 작성 과정에 기여한 핵심 그룹은 유럽 전역의 다양한 연구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20개 연구기관으로 이루어짐

핵심 그룹	
▪ Alliance of research institutes advocating for excellent research in Europe (EU-LIFE)	▪ Research on Research
▪ Helmholtz Association of German Research Centres	▪ CESAER
▪ European Research Council (ERC)	▪ Italian National Research Council (CNR)
▪ Charles University (Prague)	▪ Spanish National Research Council (CSIC)
▪ Young European Research Universities (YERUN)	▪ German Research Foundation (DFG)
▪ High Council for Evaluation of Research and Higher Education (Hceres)	▪ Utrecht University (UMC Utrecht)
▪ Young Academy of Europe (YAE)	▪ European Federation of Academies of Sciences and Humanities (ALLEA)
▪ League of European Research Universities (LERU)	▪ The Guild of European Research-Intensive Universities (The Guild)
▪ French National Center for Scientific Research (CNRS)	▪ Initiative for Science in Europe (ISE)
▪ Coimbra Group & FOREU2 European Universities Alliances	▪ Swedish Research Council

- **(Potential Coalition Members)** 연구평가개혁에 관심을 표명한 40개국의 350개 기관 역시 핵심 그룹과 함께 초안 작성 과정에 참여함
- 이들은 초안의 수정사항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향후 개혁 집행을 위한 조직 구조 및 거버넌스 시스템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게 됨
- ※ 관심표명 그룹(잠재적 연합 회원) : 연구평가개혁 연합 가입에 관심을 표명한 조직의 목록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음(최종 업데이트 '22.07)

☞ 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system/files/2022-07/ec_rtd_call-for-interest-ra.pdf

□ 주요내용

① 서론

- (비전) 연구의 질과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다양한 결과·관행·활동이 있음을 인식하여 연구평가에 반영하는 것
 - 이를 위해 연구의 질적 수준에 기초한 평가가 필요하며, 동료평가 시 정량적 지표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책임있는 사용이 뒷받침되어야 함
- (정의) 본 협정의 맥락에서 연구평가는 다음을 포함
 - ▲연구 유닛 및 수행조직에 대한 평가,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개별 연구자 및 연구팀에 대한 평가
- (특징) 이 협정은 위에서 정의한 ‘연구평가’의 개혁에 중점을 두며, 국가 차원의 연구성과나 기관의 성과 검토는 포함하지 않음
 - 학문적 평가 역시 협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각 조직은 이 협정의 원칙과 책무를 학문적 평가로 확장할 수 있음
- (방법) 연구평가 기관의 연합(Coalition)을 통한 개혁 달성
 - 연합 회원은 합의된 기간 내에 공통 원칙에 기초한 체계적인 개혁을 가능하게 하고 연구평가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모든 주체 사이의 정보 교환 및 상호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

② 행동원칙

- 전반적 조건에 대한 원칙
 - 윤리·무결성 규칙 관행의 준수 및 시행
 - 연구자의 방법론을 제한하지 않는 과학 연구의 자유 보호
 - 연구기관의 자율성(독립성) 존중
 - 연구의 평가 및 영향 판정에 필요한 기준의 독립성과 투명성 보장
- 평가 기준 및 프로세스에 대한 원칙
 - (연구의 질) 평가 기준의 초점을 연구의 질에 맞출 것

※ 품질(Quality) : 투명한 연구 과정과 방법론, 기존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하는 연구 관리를 통해 수행된 연구를 의미

※ 개방성 : 초기 지식과 데이터 공유 뿐만 아니라 적절한 경우에 사회적 참여를 포함한 개방형 협업을 의미

- (영향) 연구 결과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인식할 것
- (다양성) ①연구 활동·관행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개방형 협업에 대한 보상 제공, ②다양한 과학 분야, 연구 유형을 존중하고 분야 간의 그리고 분야를 넘어서는 접근 방식을 인정하는 평가 기준과 평가과정 사용, ③양성평등, 동등한 기회 및 포괄성 보장
- (협업) 연구 역할과 경력의 다양성을 인지하고 가치를 부여하며, 개인의 역량 및 장점을 가치있게 여길뿐만 아니라 팀연구와 협업도 인정할 것

③ 책무 이행

- (핵심책무) 연구의 질을 극대화하는 다양한 관행과 활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부적절한 측정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약속 등을 포함
 - 1) 연구의 특성에 따라 이에 기여하는 역할과 경력의 다양성 인식
 - 2) 양적 지표의 책임감 있는 사용이 뒷받침 된 동료평가에 기초한 연구평가
 - 3) 학술지 및 출판에 기반한 연구평가 기준, 특히 저널영향력지수(JIF), H-index의 부적절한 사용 중지
 - 4) 연구평가 시 연구기관의 순위 지표 사용 지양
- (보조책무) 새로운 연구평가 기준·방식·절차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세 가지 책무와 학습의 촉진, 소통, 정보 제공에 대한 책무를 포함
 - 5) 연구평가개혁을 수행하는 조직 변화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원 투입
 - 6) 연구평가 기준·방식·절차 검토 및 개발
 - 7) 연구평가개혁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평가기준/프로세스와 그 사용에 대한 투명한 소통·지침·교육 제공
 - 8) 연합 내외의 상호 간 학습이 가능하도록 실무/경험에 대한 정보 교환
 - 9) 원칙 준수 및 책무 이행에 대한 진행 상황에 관한 소통
 - 10) 확실한 증거와 최신 연구를 기반으로 연구평가 관행·기준·도구를 평가하고, 데이터를 증거 수집 및 연구에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

4 연합의 조직 및 운영을 위한 원칙

- 협정의 서명자는 연합의 거버넌스 문서에 명시된 회원 자격을 충족할 시 연합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지며, 회원은 언제든지 연합을 탈퇴할 수 있음
- 연합은 회원들로 구성되며, 총회는 세부적인 조직과 운영의 규칙 및 절차를 정의함
- 연합은 회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책무 이행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상호 학습 및 협업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함
 - 회원은 이를 위해 '실행커뮤니티'라는 특정 주제에 대한 워킹그룹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짐
 - ※ 워크숍이나 웨비나와 같은 다른 수단도 사용할 수 있음
- 각 회원의 책무 이행 진행 상황은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며, 이러한 신뢰 기반 접근법은 공동 실험을 포함한 정보 교환 및 협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 연합 활동에 대한 비용은 회원들의 현금/현물기부 또는 연구 기금 조직의 자금으로부터 지원함
- 의사결정은 총회와 사무국이 지원하는 운영위원회 등의 구조로 추진
- 국가·지역 당국과의 주기적 상호 작용을 위한 메커니즘은 국가·지역 정책 및 프레임워크가 연합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보장할 것
- 연합은 적절한 경우 다른 기존 이니셔티브 및 조직과의 협업·상호보완성·시너지를 추구할 것

5 협정 이행 기간 준수

- 회원은 '23년 말 또는 협정 서명 후 1년 이내 연구평가개혁에 대한 기준·방식·절차를 개발하고 검토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개시와 관련된 내용을 커뮤니티와 공유해야 함
- 회원은 '27년 말 또는 협정 서명 후 5년 이내에 핵심 책무를 이행하는 기준·방식·절차의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입증해야 함

□ 부록

1 연구평가개혁의 필요성

- 연구평가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
 - 특히, 개혁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연구의 질’
- 학술지 및 출판 기반 측정 기준에 의존하는 평가 방식은 연구의 질을 해칠 수 있는 ‘출판문화(publish or perish)’를 초래
 - 이는 연구의 양과 속도에 집중하게 만들고, 유료가입 저널 출판 확대 등에 영향을 주게 됨

2 용어집(Glossary)

※ 연구평가, 연구환경, 메타연구, 다양성, 윤리·무결성 등에 대한 정의(내용 생략)

3 개혁 절차 : 책무 이행을 위한 프로세스 제안

- 회원이 책무를 이행하도록 돕기 위해 제안된 비규범적 단계별 행동강령
 - (1) 자원을 투자하여 적극적으로 개혁 절차에 참여할 것
 - (2)(3) 개혁 의사를 전달하고, 현재 평가 관행을 평가할 것
 - (4) 평가 기준과 과정의 개발 단계에서 평가 대상자를 참여시킬 것
 - (5) 기존 및 새로운 평가 기준·방식·절차를 개발할 것
 - (6)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해 숙고할 것
 - (7)(8) 개발된 새로운 평가 기준·방식·절차를 구현 및 평가할 것
 - (9) 데이터와 정보를 공유하고 내부 및 외부의 상호학습에 참여할 것
 - (10) 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 다른 조직과 합동하고 조정·조화를 촉진할 것
 - (11)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 기준·방식·절차를 지속 발전시킬 것

4 툴박스

- 툴박스는 책무 이행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며, 이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

3 연구평가개혁 연합

□ 연합 가입의 이점

- 연합은 연구평가개혁 과정을 진행하기 위한 지식을 교환하고, 함께 작업하고, 테스트(파일럿)을 진행하고, 동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등 전반적인 연구평가개혁을 지원함

- 특히 연합은 협업을 통해 다음 사항을 식별, 교환, 전달할 수 있게 함

- 연합 내외에서 회원들이 시험하고 시행한 변경사항에 대한 정보
- 변화를 통해 확립되었거나 확립 중인 모범 사례 및 직면한 도전적 경험과 교훈
- 연합 회원 전체 또는 일부가 고려할 수 있는 권장 사항 및 지침
- 공동 실험 및 이니셔티브
- 변경사항의 영향(편익, 비용 등)에 대한 정보

- 회원은 선택한 주제(아래 예시 참조)에 대한 실행 커뮤니티를 시작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동료평가 및 질적 평가 / 서술형 CV
- 평가 지표의 책임감 있는 사용
- 국가평가기관의 측정 기준을 기관평가에의 적용
- 연구비 제공자의 연구 프로젝트 평가
- 분야, 학제간 융합연구 또는 주제 영역별로 기준 및 프로세스 조정
- 연구와 기타 학술 활동 간의 균형
- 이해 상충 및 편향성

- 연구평가개혁에 있어 덜 발전한 국가는 연합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보다 발전한 평가 관행을 가진 회원은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일관된 평가 생태계의 개발을 지원하며 평가 방법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음

- 연합은 정책과 규정 개혁을 담당하는 특정 조직들이 함께 일하고 발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

- 동시에 유럽 내/외부 여러 국가들의 경험에 대한 접근을 제공

- 연합은 연구기관의 연구평가개혁을 제한하는 모든 법적·행정적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ERA포럼을 포함하여 국가·지역 당국과도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을 구성할 수 있게 함

- 연합은 각종 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서로 다른 연구평가관행과 프레임 워크 간의 잠재적 모순을 피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참여 대상

○ 연구평가와 관련된 전 세계의 비영리 단체

- 공공/민간 연구비 지원 기관, 대학, 연구센터, 연구 기반 시설을 포함한 연구수행 기관, 연구평가를 시행하는 국가·지역 당국 또는 기관, 연구비 제공자 협회, 연구 수행자 협회, 연구원 협회 등

※ 협정 서명과 연합 참여는 개인에게 열려 있지 않으나, 개인과 연구자의 참여를 위한 메커니즘은 향후 연합에서 계획할 예정

○ 연구평가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지역 당국은 협정에 서명하고 가입할 수 있음(특별한 전담 역할을 부여하지는 않음)

※ 연합은 커뮤니티 주도적이며 모든 구성원은 평등한 투표권과 참여권을 가짐

○ EU 집행위원회는 협정 준비 과정의 촉진자 역할을 하며, 연합이 조직되고 운영되는 방식에 대한 작업과 토론을 촉진하고 있음

- 제1차 연합 총회 이후 집행위는 연구혁신 자금 제공자로서 연합에 합류하여 다른 연합 회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연합의 운영에 참여하게 됨

□ 연합 가입

○ 연구평가에 참여하는 비영리 조직은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통해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연합에 가입할 수 있음

- 위 조건을 충족한 모든 조직은 연합 총회(Constitutive Assembly)에 참석하도록 초대됨

※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과 가입 승인은 사이언스유럽, 유럽대학연합(EUA), 집행위원회가 구성된 임시 사무국에서 진행하며, 첫 번째 연합 총회 이후로는 연합 사무국이 선출한 연합운영위원회가 이를 진행함

※ 또한 회원기관은 연합 사무국에 통보하여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음

○ 가입한 조직의 협정 이행에 대한 진행 상황은 따로 모니터링하지 않음

- 조직의 참여는 협정의 내용에 따라 완전히 자발적으로 이루어짐

□ 연합 예산 모델

○ 연합 운영에 대한 지원은 자발적인 현물 기부와 연구비 지원 기관에서 얻은 자금 및 회원의 현금 기부로 구성

- 더 자세한 자금 조달 모델에 대한 옵션은 준비 중이며 추후 논의될 예정

4 시사점

□ 유럽연구영역(ERA) 맥락에서의 연구평가개혁

- 연구평가개혁은 유럽 내 연구 분야의 단일 시장 형성을 위한 ERA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ERA의 주요 의제는 주로 서유럽에 비해 뒤떨어진 동부·중부 유럽을 지원하여 유럽 내 연구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따라서, 이러한 개혁 시도는 연구평가 부문에서 유럽 내 통일성을 갖게 하기 위해 연구평가 선진국이 다른 국가를 지원하기 위함
- ☞ 한국 연구지원 기관 참여 시 다른 연구지원 선진국과의 원활한 교류를 기대할 수 있으며, 연구평가에 뒤처진 나라에는 선진화된 연구평가 시스템을 보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호협력할 수 있을 것임
- ☞ 특히 호라이즌 유럽과 같은 프로그램의 목표에 따라 EU는 협력 대상을 유럽 역외 국가로 확대 중이며, 같은 가치와 시스템을 공유하는 국가는 유럽 외에서도 협력이 가능함. 연구평가개혁 연합에 대한 가입은 EU와의 적극적인 협력에 대한 한국의 입장 표명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음

□ 연합의 거버넌스 시스템 공유

- 연구평가개혁의 주요 내용 파악을 통해 연구평가에 관한 국제적 흐름 특히, 유럽연합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음
 - 개혁 자체의 내용은 연구의 질 향상이나 과학적 다양성 존중 등 기존부터 있어왔던 내용으로 큰 특이점이 없음
 - 연구평가 시스템과 관련 가치 및 원칙을 공유함으로써 연구 및 연구평가 협력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
- EU의 큰 강점은 다국가로 이루어진 대규모 조직을 관리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음
 - 40개국 이상의 국가와 수백 개의 조직이 참여하는 연합의 거버넌스 시스템에 대한 학습은 추후 우리 정부가 이와 유사한 연합을 조직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 연합에 회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대규모 연합의 구조 및 운영 시스템의 장단점을 경험적으로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국내 연구지원 기관의 연합 가입 고려

- 연합은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해외 국가에도 열려 있으며, 연합의 가입을 통해 다른 유럽 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연합은 집행위원회, 유럽대학연합, 사이언스유럽을 포함하여 유럽의 주요 대규모 대학 연합 및 연구 기관 네트워크가 대부분 참여하고 있음
 - 특히, 연합 내에서 특정 주제에 대한 '실행커뮤니티', '웨비나', '워크숍'의 조직을 통해 한국이 주도하는 커뮤니티를 설립할 수 있음
- ☞ 이러한 연합 내 활동을 통한 다른 기관과의 교류는 추후 연구 협력 촉진을 기대할 수 있음

□ 자율성을 강조하는 연합

- 협정과 연합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각 참여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므로 참여에 있어 부담이 없으며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음
 - 또한, 회원의 책무 이행에 대한 별도의 모니터링이 없는 대신 각 조직의 자체적인 평가로 이루어지며 이행 속도와 기한 역시 비교적 자유로운 편
 - 다만 가입 시 분담해야 할 기여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연구지원기관으로서 연합에 참여한다는 점과 해당 연합이 ERA 의제 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EU가 호라이즌 유럽이나 기타 자금을 통해 해당 연합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음
- ※ 기여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버넌스 문서에서 확정될 예정